

토정비결

1968년 9월 3일 | 양력 | 남성

토정수

2856

연운 (한 해의 운세)

올해는 그동안 쌓아온 노력이 결실을 맺는 풍요로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. 봄에 뿌린 씨앗이 가을에 황금빛 열매를 맺듯, 귀하의 성실함이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. 특히 사람과의 인연이 귀한 복을 가져오니 겸손한 마음으로 주변을 살피면 귀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. 건강과 재물운이 함께 상승하니 적극적인 자세로 기회를 맞이하시면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. --- ##

1월

새해 첫 달, 만물이 소생하듯 새로운 기운이 찾아옵니다. 오래된 계획이나 미루어두었던 일을 시작하기에 길한 시기이니 용기를 내어 첫발을 내디디십시오. 가족 간의 화목이 더욱 깊어지며, 집안에 경사스러운 소식이 들려올 징조가 보입니다. ##

2월

재물운이 점차 상승하는 달입니다. 작은 투자나 저축이 훗날 큰 도움이 되니 알뜰한 마음으로 재정을 관리하십시오. 직장이나 사업에서 상사나 협력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며, 이는 앞으로의 발전에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. ##

3월

봄기운과 함께 인간관계에서 화기애애한 기운이 감돕니다. 오랜 친구나 지인과의 만남에서 뜻밖의 좋은 정보를 얻게 되니 소통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. 학문이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려는 노력이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. ##

4월

귀인의 도움으로 막혔던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달입니다. 주변의 조언에 귀 기울이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면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. 건강관리에 신경 쓰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면 활력이 넘치는 한 달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. ##

5월

재물과 명예가 함께 상승하는 매우 길한 달입니다. 그동안의 노력이 인정받아 승진이나 사업 확장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. 기쁜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변과 기쁨을 나누면 더 큰 복이 돌아올 것입니다. ##

6월

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평온함을 느끼는 시기입니다.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차근차근 기반을 다지는 것이 좋습니다. 가정에서의 화목이 일의 능률을 높이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. ##

7월

여름 햇살처럼 밝고 활기찬 기운이 가득한 달입니다.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를 시도하기에 좋은 시기이며, 적극적인 행동이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. 여행이나 외출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거나 영감을 얻을 수 있으니 활동적으로 지내시기 바랍니다. ##

8월

재물운이 특히 좋은 달로, 부수입이나 뜻밖의 수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다만 들어온 재물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주변의 어려운 이들과 나누는 마음을 가지면 더 큰 복이 돌아옵니다. 건강 또한 좋으니 여유로운 마음으로 즐겁게 지내십시오. ##

9월

귀하의 생일이 있는 달로, 한 해의 운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. 중요한 결정이나 계약을 하기에 매우 길한 때이니 망설였던 일이 있다면 과감히 진행하십시오. 주변에서 축하와 존경을 받으며 자존감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. ##

10월

수확의 계절답게 그동안의 노력이 풍성한 결실을 맺습니다. 사업이나 직장에서 성과를 인정받고 보상이 따를 것입니다.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변에 선행을 베풀면 내년까지 이어지는 좋은 운을 쌓을 수 있습니다. ##

11월

인간관계에서 조화와 균형이 중요한 시기입니다. 오해가 있었던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협력 관계가 형성되어 일이 더욱 순조롭게 진행됩니다. 겨울을 준비하듯 재정과 건강 관리를 꼼꼼히 하시면 안정된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. ##

12월

한 해를 마무리하며 뿌듯함과 감사함을 느끼는 달입니다. 올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에 좋은 시기입니다. 가족 및 가까운 사람들과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며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면, 새해에도 복된 기운이 이어질 것입니다. --- **※ 토정비결 말씀** "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" 하였습니다. 좋은 운도 성실함과 겸손함으로 맞이할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. 2026년 한 해 동안 긍정적인 마음과 감사하는 자세를 잃지 않으신다면, 귀하의 앞길에는 밝은 빛이 가득할 것입니다.

토정비결은 조선시대 토정 이지함 선생이 만든 운세입니다.
참고만 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.